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도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1

사람들이 정의만을 중시하고 배려는 소홀히 해 와서 그래요.

2

그럼 배려를 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3

먼저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4

- 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
- ② 도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감성적인 관점보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 ④ 도덕 문제 해결에서 타인에 대한 보살핌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⑤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인간적 유대를 쌓아 나가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영혼은 앎을 사랑하는 이성적인 부분, 승리를 사랑하는 기개적인 부분, 돈을 사랑하는 욕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의 탁월한 상태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다.

을: 영혼은 이성적 부분, 이성애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 이성적인 것이 없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성적 부분의 덕은 지성적 덕이고, 이성애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의 덕은 품성적 덕이다.

- ① 갑: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이상국가를 통치한다.
- ② 갑: 절제는 이상 국가에서 생산자 계층 사람만이 갖춰야 하는 덕이다.
- ③ 을: 최고선(最高善)은 다른 모든 좋음들을 포함하는 완전한 선이다.
- ④ 을:中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⑤ 갑, 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음에 대한 객관적 앎이 있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욕망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성의 힘으로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을: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 헛된 생각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갑은 덕을 갖추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③ 을은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의 우정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곧 쾌락임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덕이 쾌락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도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4. (가)의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예악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현명한 임금은 덕으로 정치를 행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을: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라는 보존되고 도가 없으면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 현명한 임금은 군자를 등용하여 법도를 밝힌다. 도는 임금이 밝아야 할 길이고, 군자는 예의를 다스리는 자이다. 사람의 본성[性]은 교화를 거친 후에 선에 부합된다.

(나)

〈범례〉

- A: 갑만의 입장
- B: 갑, 을의 공통 입장
- C: 을만의 입장

- ① A: 규범을 부정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종하는 도를 추구해야 한다.
- ② A: 법령과 형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덕치를 도모해야 한다.
- ③ B: 욕구를 절제하고 예의를 밝혀 사회적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 ④ C: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인의의 도덕을 실현해야 한다.
- ⑤ C: 선천적인 내면의 본성을 확충하여 예치를 구현해야 한다.

5.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으뜸가는 선(善)은 물과 같다. 성인(聖人)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든든하게 한다.

을: 도(道)는 오로지 빈[虛] 곳에만 모이는 것이니 이렇게 마음을 비움이 심재(心齋)이다. 성인의 다스림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 행동하는 것에 그친다.

〈보기〉

- ㄱ. 갑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무위(無爲)의 덕을 강조한다.
- ㄴ. 을은 분별적 지식을 얻는 수행으로서 좌망(坐忘)을 강조한다.
- ㄷ. 을은 성인의 다스림을 통한 자연적 본성[性]의 교화를 강조한다.
- ㄹ. 갑, 을은 인위(人爲)를 거부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6.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천리(天理)이며 참된 앎[良知]이다. 마음의 본체는 천하의 이치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함이 없다.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작용은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統]하고, 그 밝은 덕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감응하지 않음이 없다.

— < 보 기 > —

- ㄱ. 천지만물은 선한 마음에서 의미를 지니며 실재하게 되는 것인가?
ㄴ. 도덕적 행위는 먼저 도덕적 지식을 확립해야 가능한 것인가?
ㄷ. 격물(格物) 공부란 마음의 그릇된 의념[意]을 바로잡는 것인가?
ㄹ.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여 본성을 길러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 < 보 기 > —

-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배우는 자는 성학(聖學)에 뜻을 두어야 하네. 매 순간 깨어 있고 오롯이 집중하여,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理發氣隨] 순선(純善)한 사단과 기가 발하여 이가 탄 [氣發理乘] 중절(中節)한 칠정을 보존하고 사욕을 버려야 하네. 그러면 무성한 수풀 속에 한 떨기 난초꽃이 종일도록 맑은 향기를 뿜으면서도 스스로 그 향기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네도 어느덧 성현이 되어 자기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네. ... (후략)...

- ① 기쁨·슬픔·노여움 등과 같은 칠정에는 선(善)이 존재할 수 없다.
② 기(氣)를 중시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지향해야 한다.
③ 이(理)의 본연인 선을 실현하여 도덕적 인격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④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기에서 나와서 이가 드러난 도덕 감정이다.
⑤ 궁리(窮理) 공부를 멀리하고 경(敬)을 실천하여 본심을 함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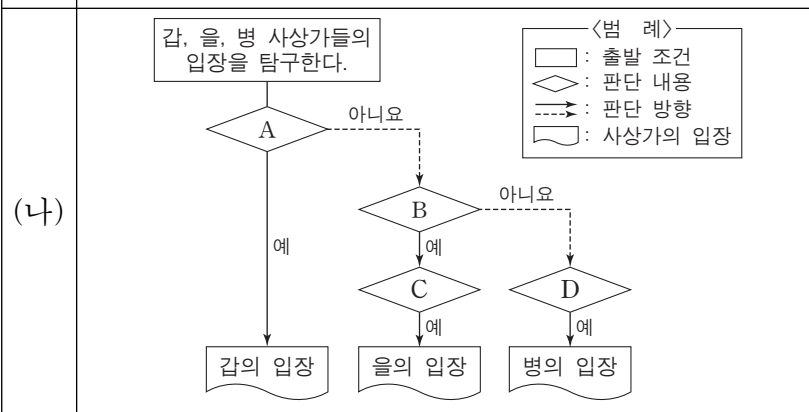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신에게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에 의존해 그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참여 활동의 원천은 신학적 덕이다.
을: 완전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해야 한다.

- ① 갑: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② 갑: 인간의 불완전함은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③ 을: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④ 을: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신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충분한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기는 다양한 생산물의 대폭적인 증가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로 최저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부의 증대를 가져다준다.</p> <p>을: 경제 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타협을 도모하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야 한다.</p> <p>병: 국가는 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과, 경쟁이 유효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나, 국가 주도로 경제 활동을 계획하면 시장은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p>
-----	--



— < 보 기 > —

- ㄱ. A: 재화의 사적인 소유와 이윤 추구 활동에 동의하는가?
ㄴ. B: 정부 정책을 통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는가?
ㄷ. C: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에 찬성하는가?
ㄹ. D: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고대 동양 사사가 갑, 한국 사사가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理)와 의(義)이다.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운 고기가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을: 사람의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할 수 있다. 이에 측은히 여길 수 있고, 사양할 수 있으니 못하는 바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며 인(仁)이다.

— < 보 기 > —

- ㄱ. 갑은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후천적 노력은 필요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자기 자신이 도덕적 삶과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
 ㄷ. 을은 도덕 행위의 기준은 마음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인간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범위이다. 어떤 쾌락이나 고통이 또 다른 쾌락이나 고통과 연결될 때 그 쾌락이나 고통도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산성과 순수성이다.

을: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① 최대 행복을 가져올 유덕한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가?
 ② 행위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이 그 행위자에게 선이 될 수 있는가?
 ③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활동에서 얻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
 ④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 자체의 옳음에 근거하는가?
 ⑤ 행위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가?

13.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

-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이성은 인간이 야수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고 참이나 거짓을 발견한다. 이와 달리 정념과 의욕 및 행위는 참이나 거짓이라고 단언될 수 없고, 이성과 상반되거나 합치될 수도 없다. 이성은 어떤 행동이나 정념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으며, 단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나)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A)</td><td></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C)</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p>[가로 열쇠] (A):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를 가리키는 말 (B): 플라톤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총칭하는 말 (C): 주자가 주장한 ‘본성이 곧 이치[理]’임을 뜻하는 말</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C)										
			(A)																																	
	(B)																																			
			(C)																																	

- ① 인간의 정신 안에서 생겨나는 인상(印象)이나 느낌에 기초한다.
 ② 자연스러운 본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도덕 규칙에서 지각된다.
 ③ 감각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과 사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이다.
 ④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 이성의 산물이다.
 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선형적 원리에서 논리적으로 연역된다.

15. 한국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의 본성은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이가 기 속에 있는 것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하고, 기질 속의 이만을 홀로 가리켜 말한 것을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이지만, 주(主)로 말한 것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성이 이미 하나인데, 정에 이발과 기발의 다름이 있다고 한다면, 성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을: 사람의 본성은 도의(道義)와 기질(氣質)이 합해진 것이다. 식욕을 추구하는 성향을 기질지성이라 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을 도의지성(道義之性)이라 한다. 짐승도 먹이를 던져 주면 먹으려 한다. 사람과 짐승의 본성을 똑같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똑같이 도의지성이라고 하면 금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 < 보 기 > —

- ㄱ. 갑은 탁하고 편벽된 기질이 불선(不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만이 선천적인 도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사람이 시비 분별의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적인 행위로 인의(仁義)의 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은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생이 삶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의혹과 잘못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심(一心)의 법을 세워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가지 문(二門)에 들어가야 합니다.



갑

중생이 부처의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깨닫고 지킬 수 있다면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가지 문(兩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을

- ① 갑: 진여와 생멸의 두 가지 문은 결국 일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
 ② 갑: 일체의 쟁론(爭論)도 일심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③ 을: 깨달음의 수행에는 언제나 정(定)과 혜(慧)가 함께 있어야 한다.
 ④ 을: 돈오 이후에 점수를 통해 모든 습기(習氣)를 단박에 제거해야 한다.
 ⑤ 갑, 을: 무아(無我)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①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성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18.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실천’이란 혼자 축구공을 열심히 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기하는 축구 경기 자체이다. 단순히 혼자 공을 차는 것에는 축구 경기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내재적인 선이 없다. 이러한 실천이 덕의 척도와 규칙이 된다. 덕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동체에 내재된 선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된다.

— < 보 기 > —

- ㄱ. 덕은 공동체와 독립된 추상적 도덕 원리를 따를 때 습득된다.
 ㄴ.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유덕한 행위가 되기 어렵다.
 ㄷ. 존경스러운 인격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ㄹ. 인간의 유덕한 성품보다 도덕 규칙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양이(洋夷)들이 사학(邪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것이 양적(洋賊)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정학(正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해야 한다.

을: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正氣],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서양의 학(學)에는 하늘님[天主]의 가르침이 없고, 서양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 < 보 기 > —

- ㄱ. 갑은 백성의 생업 보장을 전제로 서양 종교의 수용을 주장한다.
 ㄴ. 갑은 동양의 도(道)와 서양의 기(器)가 둘이 아님을 주장한다.
 ㄷ. 을은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는 만민 평등의 실현을 주장한다.
 ㄹ. 갑, 을은 효제(孝悌) 정신의 계승과 국난의 극복을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부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 학생 답안

-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나)는 ㉢ 자유로운 의회 활동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중시하였으며,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역사 발전 단계상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공산 사회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